

 부산국제금융진흥원	<h1>보도자료</h1>			
	보도	배포 즉시	배포일	2024. 3. 15.
담당부서	금융연구2실	실 장 안순구 (051-647-9051) 팀 장 최승재 (051-631-0285) 매니저 이경미 (051-631-0296)		

부산국제금융진흥원, ‘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 기념 심포지엄’ 개최

-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19일 개최
 - 2009년 부산금융중심지 지정이후 15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 짚어
 -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초연설 통해 금융당국의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방안 제시
 - 김광희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글로벌 허브 도시와 금융허브 조성 중요성에 대해 강조
- 부산국제금융진흥원(원장 이명호)은 오는 3월 19일 부산이 해양·파생금융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5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심포지엄을 개최
- 심포지엄에서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부산의 잠재력과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을 제시할 예정
 - 김광희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, 정책금융기관 추가 이전,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출범 등 주요 혁신정책을 소개하며 글로벌 허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
- 이와 함께 15주년 기념을 위해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,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, 강남훈 국제신문 시장이 참석해 축사진행
- 구체적으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초연설에서 부산금융중심지 15주년의 성과로 부산의

해양금융기관 유치(해양금융종합센터,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)와 파생금융생태계 조성 (파생상품연구센터 설립, 금리스왑거래 청산업무 개시, 금·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장 등) 성과를 소개할 예정

- 그러면서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▷핀테크 기업 지원 강화 ▷디지털 및 기후변화 관련 금융 인프라 구축 ▷부산의 장점을 살린 해양금융 특성화를 강조할 계획

□ 마이클 마이넬리 런던 금융특구 시장은 15년간 부산의 금융중심지 조성 노력과 세계적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부산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발언

- 해외 금융전문가의 눈에 비친 부산 금융의 현주소와 미래 가능성을 파악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

□ 이어서 부산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4개의 발표가 진행되며, 정책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으로 남부권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

- 박기남 동의대 e비즈니스학과 교수는 ‘정책금융기관 이전을 통한 남부권 산업 발전방향’에 관해 발표를 통해 동남권 산업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▷부산 국제 기업교류대전 비즈니스 모델 ▷공급망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력산업 보호 모델 ▷지식정보 통합 플랫폼 기반 상생협력 생태계 모델 ▷기업위기 대응센터의 위기대응 프로그램 추천 플랫폼 등 산업은행과 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

- 안순구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연구실장은 싱가포르, 홍콩, 런던사례를 통해 역외·특화·글로벌 금융중심지 등 유형별 금융중심지 조성 모델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기반으로 부산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제언을 진행하고 디지털·지속가능·해양금융의 연계 발전의 중요성을 설명

- 김갑훈 KDB산업은행 동남권투자금융센터 녹색금융팀장은 ‘부산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’을, 유명신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 지원팀장은 ‘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소개 및 업무지원 방향’을 각각 발표

- KDB산업은행 동남권투자금융센터는 산업은행 최초로 지역특화 투·융자 복합금융센터로 지역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‘부산미래성장 벤처펀드’ 조성 추진, 이차전지 순환경제 활성화 구조화 금융(안)을 비롯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

○ 금융감독원 유명신 팀장은 국내 금융현황과 금융감독원의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발표

□ 패널토론에서는 김영재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, 이진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전략본부장, 김효경 부산시 금융블록체인담당관, 김성주 BNK경영연구원 부장, 이노성 국제신문 논설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

○ 김효경 금융블록체인담당관은 부산의 신산업 동력으로 부산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 (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·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·D-valley)에 대한 사안을 집중 조명할 예정

□ 이명호 원장은 “본 심포지엄에서 15년간의 부산금융중심지 조성 성과를 되짚어보고, 부산이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해 뜻깊다”며 “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산이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디지털·지속가능·해양금융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계획”임을 밝힘

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 기념 심포지엄

2024. 3. 19(화) 11:00~15:00
부산롯데호텔 3층 펠름



국제신문은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함께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. 이번 심포지엄은 부산을 명실상부한 국제 금융중심지로 만드는 해법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.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기조연설자로 나서 부산금융중심지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. 또 주요 금융기관이 부산 금융허브 조성을 위해 디지털·지속가능·해양 금융 등 분야별 추진 과제를 논의합니다. 부산이 금융을 토대로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국제신문 사장 강남훈

주 제 부산금융중심지 지정 15년의 성과와 과제

프 로 그 램

등록	10:40~11:00	
개회사		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
환영사		강남훈 국제신문 사장
축사	11:00~11:30	김광희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,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,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
기념촬영		
기조연설	11:30~12:00	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, 마이클 마이넬리 런던 금융특구 시장 (영상)
	12:00~13:00	오찬
발표 1	13:00~13:15	정책금융기관 이진을 통한 남부권 산업 발전방향 - 박기남 동의대 교수
발표 2	13:15~13:30	부산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디지털·지속가능·해양금융 연계 제언 - 안순구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연구실장
발표 3	13:30~13:45	부산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- 김갑훈 KDB산업은행 동남권투자금융센터 녹색금융팀장
발표 4	13:45~14:00	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소개 및 업무 지원 방향 - 유영신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 지원팀장
	14:00~14:20	브레이크 타임
패널토론	14:20~15:00	부산 글로벌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발전과제 좌장 김영재 부산대 교수 패널 이진규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전략본부장, 김효경 부산시 금융특별재정담당관, 김성주 BNK경영연구원 부장, 이노성 국제신문 논설위원

| 공동주최 | 국제신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| 주관 | (사)금융도시부산포럼
| 문의 | 국제신문 미래전략실 051)500-5012, 5